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장수군,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해 전동화 개조·엔진교체 지원... 4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은 16일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총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동화 개조 3대와 엔진교체 8대 등 총 11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전동화 개조와 엔진교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규격과 엔진 등 단계에 따라 지원 물량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로, 전동화 개조는 전동화가 가능한 모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톨러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상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탈거할 경우 잔여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장수군청 환경과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력 체계 구축

진안군,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적·뇌병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진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맞춰 진안군민의 지역특화서비스 8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의료, 일상돌봄, 주거 등 3개 분야 7개 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협약기관 및 서비스 내용은 △의료 분야에서는 진안군의료원과 김홍기 가정의학과과원이 참여해 방문 의료 분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일상돌봄 분야에서는 (유)나눔푸드가 영양 도시락과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진안지역자활센터가 병원 동행 등 이동 지원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제이어컴퍼니가 안전한 주거 환경개선을 담당하고, (유)마이크리안이 청소 및 방역 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어르신 스포츠 강좌 공모 선정

무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강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주군은 지역 특성과 어르신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지역으로 태권도 중심 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해 '교원바탕 청정기운 실버할력교실'을 제안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주태권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주관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실버 태권도 교실을 중심으로 요가와 헬스, 생활체조 등으로 구성된 건강 활력 교실, 테니스 교실, 파크골프 대회 등이다. 무주군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형 모델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일상 기능 유지와 체력 증진을 돕고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무주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지원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해 무풍과 안성 본소 등 3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효율적인 임대사업장 운영과 영농 활성 지원을 위해 총 7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국·도비는 1억4,000만 원이 포함됐다. 임대사업장 3곳에는 총 13명의 근무 인력이 배치됐다. 무풍과 안성 본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운영하며 무주 본소는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농기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날 오후 5시부터 임대할 수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교육지원청, 국립진안고원신탐치유원, 진안군의료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진안군북한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노인요양원), 원마실 등 7개 주요 기관·시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협력

진안군, 7개 주요 기관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하는 첫발을 디뎠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교육지원청, 국립진안고원신탐치유원, 진안군의료원,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진안군북한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노인요양원), 원마실 등 7개 주요 기관·시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축된 지역 먹거리 공급 체계를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군은 지난 6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2025년 기준 누적 매출 14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공공 급식용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한 물류·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 체계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급식 운영 시 진안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원활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수요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이번 첫 협약을 시작으로 군 부대를 비롯한 관내 위치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갖고 본격 추진

장수군은 지난 12일 계북면 참샘골 체육관에서 장수노인복지관 주관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최한주 장수군의회의장,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안내와 함께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등 필수 교육도 진행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군은 13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수노인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을 통해 △공익활동 6개 사업(2,899명) △여량활동 18개 사업(300명) △공동체 사업단 9개 사업(148명) 등 총 3,347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편 군은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진안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안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신청인은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실제로 경작해야 하며, 오감을 충족한 양봉업 및 어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자나 농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뒤,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119구급대 적정 병원 이송 협조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함동규)는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신속한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119구급대의 병원 선정 안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119구급대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Pre-KTAS(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라는 체계를 사용한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호흡, 맥박, 통증 등 여러 증상을 확인하여 위급한 정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는 방식이다. 구급대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환자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과 병상이 있는 가장 가까운 적정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구급 현장에서는 평소 자주 가던 병원이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형 병원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환자가 즉시 치료받아야 할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